

서로 다른 ‘My way’,

그 퍼즐을 맞추는 즐거움



방송인이자 저술가 전여옥, 가수이자 화가·저술가 조영남. 둘은 참 다르다. 철저히 관찰자가 되어 혼자 여행하는 것을 즐기는 전여옥(44)에 비해 조영남(59)은 죽어도 혼자서 그런 짓(?)은 못한다. 도대체 ‘혼자서 멍하니’ 그게 무슨 재미냐 이거다.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전여옥은 와인을 즐기고 좋은 음식을 찾아 어디든지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조영남은 먹는 것에 취미가 없다. 언제 어디서나 햄버거나 피자 한 판이면 된다. 전작《조영남 씨 천재예요》에 대해 “탄탄한 구조까지 갖추고 있는 조영남의 글, 이 양반, 아무래도 구어체로 글쓰기의 고단자 같다”고 쓴 이윤기 씨와 그의 아내를 사례한답시고 불러다 피자 한 판 내놓은 위인(?)이었다. 그나마 늦은 촬영을 끝내고 감자탕 먹을 때 ‘정말 맛있구나’ 감탄하는 정도다.

이쯤 되면 성격상 개와 고양이라고 해도 크게 잘못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 둘은 서로를 좋아한다. 전여옥은 조영남의 신간《조영남 길에서 미술을 만나다》에 장문의 '여는 글'을 써주기도 했고 조영남도 전여옥과의 인터뷰를 위해 '대~한민국, 태극기 순회전시회가 있는 광주에서 일정을 하루 앞당겨 서울로 돌아왔다.

“솔직히 전 사람을 많이 가리는 편이에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명확하죠. 그런데 조영남 썬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든 적극적이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크다고나 할까요. 1996년 겨울에 제가 진행하는 토크쇼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당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을 때여서 조영남 씨가 소극적으로 나올 법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뭐랄까 제가 생각했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필연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에서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죠.”

전여옥이 '조영남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모습'에 끌린 반면 조영남은 그냥 첫눈에 반했다.

“전여옥이 21살 때 만났으면 당장에 프리포즈했을 거야. 돌돌하고 당돌하고... 한참 젊을 때 그보다 매력 있을 수 없잖아. 처음 전여옥을 봤을 때 피클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

하지만 조영남은 전여옥이 얼마 전까지 '여옥이~'인 줄만 알았다. 남들이 아는 것처럼 '성깔 있는 여자'라는 걸 안 건 비교적 최근이었다.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응급실 당직자였던 한 소아과 의사의 불친절을 신랄하게 비판한 <3류 의사는 가라>라는 칼럼(스포츠조선 2000년 2월)으로 의사들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더니 <누드교사를 위한 변명>(조선일보 2001년 5월)에서 '안 해도 될 제왕절개를 한, 특수한 지식을 지닌 엘리트에 의해 유린당한 우리나라 여성의 전형적인 몸'이라는 구절이 문제가 돼 결국 의사협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다. 조영남은 우연히 옆에서 전여옥이 하는 휴대폰 통화를 듣고 난 후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의사협회에서 고소를 했다고 법원에서 전화가 왔나봐. 나 같으면 '법조계'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받으면 잘했건 잘못했건 가슴졸이면서 안절부절 못했을 텐데 전여옥이는 꿈쩍도 안 해.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식이야. 한마디로 조폭스타일이지. 의사협회든 검사든 방송사든 대통령이든 겁내지 않더라구. 난 몰랐지. 전여옥이 이런 사람인지. 몰라 좀더 일찍 알았다면 내가 피해 다녔을 텐데.(웃음)”

이처럼 상반되는 사람이 상대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그 때문이었다. 전여옥은 자신이 갖지 못한 조영남의 포용력과 창의력이 좋아보였고, 조영남은 감히 엄두도 못내는 전여옥의 당찬 모습이 부러웠다.



《삿포로에서 맥주를 마시다》 전여옥 지음 | 해냄 | 254쪽 | 값 10,000원

이번에 나온 신간《삿포로에서 맥주를 마시다》와《조영남 길에서 미술을 만나다》역시 어디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으면서도 읽다보면 비슷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책이다.

조영남은《삿포로에서 맥주를 마시다》를 읽고 전여옥은 '여류'라고 판단해 버렸다(조영남은 '칭찬주의자'다. 밀어줄 만하다 싶으면 '빨가벗고 달려들어' 칭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나라 문화계에도 스타가 나오고 대가가 나오고 대중들의 관심도 늘어난다고 믿는다). 윤심덕, 나혜석, 전혜린 이후에 여류 기근이라고 할 만큼 여류가 없는데 전여옥이 그 뒤를 잇고 있다는 것이다.

“글쎄 제가 여류인지는 모르겠구(웃음). 이 책은 3년 전부터 준비했어요.《일본은 없다》를 쓴 이후 10년이 지나니까 일본에 대한 생각도 바뀌더군요. 강대국에의 야망과 탐욕 부풀리기를 포기하지 않던 일본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귀엽고 앙증맞고 깜찍한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력을 잃은 할머니처럼 조용히 늙어가고 있는 일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고 가볍게 일본에 대해 쓸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정작 전여옥이 이 책에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쾌락주의자 전여옥의 일본 즐기기'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쾌락주의자'로서 자신의 인생관이다. 쾌락주의란 쾌락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이라 생각하고 모든 행동과 의무의 기준으



로 보는 윤리학의 입장이다. 여기서 전여옥이 말하는 쾌락은 또 다른 생산으로서, 삶의 밸런스로서의 쾌락이다. 결국 여행을 한 다거나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사치(쾌락) 일 수 있지만 삶의 균형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조영남 길에서 미술을 만나다》 조영남 지음 | 월간미술 | 222쪽 | 값 15,000원

조영남의 《조영남 길에서 미술을 만나다》는 당돌하게 “세상 모든 것이 미술이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책이다. 물론 팝아트적인 관점이기도 하지만 ‘내가 사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매일 걸치는 손목시계, 이런 것부터 얼마나 기막힌 미술’ 이냐는 것이다. 조영남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월간미술>과 손잡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 도심을 순방하는 미식가’ 처럼 도심 곳곳에 숨어 있는 대가들의 미술품을 찾아 그 작가와 작품을 쉽고 유쾌하게 소개하고 있다.

“전여옥이 안 좋아하는 것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 쇼핑인데 내가 보기엔 백화점에 인간의 천지 창조가 있어. 가방만 해도 그 제한적인 용도를 가지고 수백 수천 가지 디자인을 만들어내잖아. 모두 다 예술이지.”

전여옥은 일본을, 조영남은 미술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서로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한곳에 엮매이지 않고 자유롭고자 하는 형식은 같다. 그리고 그 형식은 본능에서 라기보다 ‘치밀함’에서 나온다.

전여옥은 《조영남 길에서 미술을 만나다》 여는 글에서 “남들은 조영남을 보고 노래도, 글도, 연애도 모두 편히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100퍼센트 틀린 생각”이라고 말한다. 전여옥이 보기에 조영남은 누구보다 복잡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도 많이 굴리고 생각의 양도 많다. 노래만 해도 젊은 날의 ‘요절’을 거부하고 나이 들어서 버티는 것 자체가 재능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조영남의 글도 그렇다. 숨가쁘게 자판을 두드려대는 요즘 글쓰기가 아니라 한 자 한 자 손으로 써 내려가는 천연기념물적 작업이다. 그리고 두 번이나 이혼을 한 것을 보면 그는 매우 체제지향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이 틀림없다”고 분석(?)한다. 그 많은 양의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스스로를 외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사실 전여옥이 그렇게 썼을 때 당혹스러웠어. 남들에게 외로워 보이지 않으려고 철저히 노력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보였을까 하고 말이야. 여옥이 같은 친구를 만나서 내가 애써 보이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 같다. 하긴 누구나 다 외롭지 않아 보이는 만큼 외로움의 부피가 있는 거니까.”

전여옥과 조영남은 스스로 21세기를 자신과 같은 사람들의 시대, 즉 ‘다중적 인간의 시대’라고 정의한다. 어렸을 때 이것저것 흥미를 보였던 조영남은 어른들로부터 ‘한우물을 파라’라는 소리를 지껄게 들어왔다. 너무 듣다보니까 ‘두고 봐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마’ 오기를 품었다. 전여옥은 일본 중에서도 북해도를 좋아한다. 소수의 원주민 아이누를 빼면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로 채워진 북해도는 텃새가 없다.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자신을 편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보니 전여옥이 철저하게 관찰자가 된 것도 조영남이 철저하게 만능 엔터테이너가 된 것도 어쩌면 자신들과 썩 어울리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는지 모르겠다. 📖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